



# 필리핀 투자 뉴스

2009. 3.31, Bi-Weekly, No. 17



kotra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마닐라

## Focus

필리핀 CDM 시장 동향과 진출기회

## 경제 통상 정보

필리핀 Visayas 전력거래소 상반기중 개장: 전력시장 자유화 앞당길 듯

필리핀, 바이오에탄올/메탄 활용 전력 상용화 급물살: 에너지 규제 당국 친환경에너지 생산 전기 판매 승인

## 투자 Project 정보

투자 프로젝트 정보 - 구리, 금, 은 광산 프로젝트 1

투자 프로젝트 정보 - 구리, 금, 은 광산 프로젝트 2

'Leyte' 니켈 광산 개발 Project (Magnetite/Iron/Ferronickel Opportunities)

친환경 석탄화력 발전소 Project

## 전문가 칼럼

미리보는 2010년 필리핀 15대 대통령선거

전략물자 수출입

## 경제 단신

필리핀 정부 Calaca 석탄발전소 매각 추진

필리핀 정부, 노르웨이 Intex Resources ASA사에 남Luzon 지역 니켈채굴 프로젝트 허가

Conal Holdings Corp.사, Mindanao 석탄발전소 상업발전 가동 연기

캐나다 광업회사 구리, 금광 탐사

수출용 옥수수 재배지로 Isabela 지역 선정

바이오디젤의 코코넛유 혼합비율 확대 요구

## 투자진출 A to Z

외국기업의 민간발주 공사는 가능합니까?

필리핀 내 식품류의 수입은 가능합니까?

## 주요 경제 지표

## 해외투자진출 관련 안내

OIS(해외진출정보시스템) 및 필리핀 비즈니스 클럽(온라인카페)안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법률회계 고문 무료 상담

무역투자 정보포탈(Global Window) 안내

필리핀 투자뉴스 지난호 보기

- 작성 : 필리핀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 전화 : +63-2-893-3244
- 팩스 : +63-2-817-3369
- 홈페이지 : [www.kotra.or.kr/manila](http://www.kotra.or.kr/manila)
- 이메일 : [manila@kotra.or.kr](mailto:manila@kotra.or.kr), [hanskim@kotra.or.kr](mailto:hanskim@kotra.or.kr)



▣ Focus

필리핀 CDM 시장 동향과 진출기회

- 필리핀은 '90년대 초 기후변화 협약에 관한 기구협의회(IACCC ;Inter-Agency Committee on Climate Change (IACCC)에 참여, 환경자원부(DENR)가 IACCC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 바 있으며, '97년 교토의정서 비준 당시부터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를 주도할 정도로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역점을 두고 있음(필리핀은 '03.11월 교토의정서 비준에 따라 향후 수년간 116,339톤의 탄소배출 감소가 권고되고 있음)
- 필리핀은 탄소감축 의무국은 아니지만 뛰어난 자연조건을 바탕으로 바이오 및 재생에너지 분야 강점을 활용, CDM 사업 추진이 유망한 국가로 정부차원에서 프로젝트의 발굴 및 추진을 적극 장려중임('09년 3월 등록기준 세계 4위 CDM 프로젝트 보유국가)
- 필리핀은 '07년 재생에너지법, '08년 바이오에너지법을 제정하여 해당 분야 기술의 신속한 발전과 투자 유인책을 채택 CDM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 필리핀 내 CDM 사업은 환경자원부(DENR,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가 DNA로 지정되어 있으며, DENR은 필리핀에서 신청되는 CDM 프로젝트에 대해 국제적인 등록규정 준수, 필리핀 지속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평가, 승인하고 이를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등록하는 역할 수행
- 현재 필리핀 내 등록된 21개 CDM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환경자원부가 제시하는 유망 CDM사업은 풍력, 바이오매스, 수력, 태양광, 지열 및 도시 폐기물 관리 및 처리, 탄소 배출(고체, 석유 및 가스 등)의 억제 산업 등임(세부사항은 <http://cdm.unfccc.int> 참조)
- 필리핀 환경자원부는 CDM 프로젝트의 허가기준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필리핀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발전 공헌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반응 등을 중점 반영하고 있음. 또한 CDM 프로젝트 심사를 위해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CDM사업 국가표준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데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 등 3가지 차원에서의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세부 기준은 환경자원부령 No. 2005-17 참조)

- CDM Emission Reduction Projects
  - 기존의 실제 혹은 과거의 배출량과의 비교
  - 투자 장애요소를 감안한 경제적으로 매력 있는 대표적인 기술을 활용한 배출 감소여부
  - 유사한 사회, 경제적, 환경 및 기술적 환경하에서 해당분야 상위 20%의 과거 5년 간 유사한 프로젝트 수행상의 평균 배출량과의 비교
  
- GHG Removal by Sinks
  - 기존의 혹은 과거 프로젝트를 통해 적용 가능한 탄소 축적의 변화
  - 투자 장애요소를 감안한 경제적으로 매력 있는 대표적인 기술을 활용한 배출 감소여부
  - 프로젝트 시작후 토지이용이 가장 많을때를 기준으로 프로젝트로 인한 탄소 축적량 변화
  
- 부대조건
  - 신청된 CDM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배출되는 GHG는 기본계획서보다 낮아야 함
  - 실제 CDM 프로젝트를 통해 흡수된 GHG는 기본계획서보다 많아야 함
  - 프로젝트 신청기업의 CDM 프로젝트 수행 가능여부 입증(경제 사회적 장애를 감안한)
    - ◆ 투자상의 장애요인
    - ◆ 금융 및 경제적인 장애요인
    - ◆ 기술적인 장벽
    - ◆ 제도적인 장애
    - ◆ 현지문화관습 등에 따른 장애
    - ◆ 현지 관행에 따른 장애
    - ◆ 현지 생태환경적인 조건상의 장애
    - ◆ 사회조건에 따른 장애 등
    - ◆ 토지임차, 소유, 유산, 재산권 등에 따른 장애
  
- 필리핀 내 CDM 프로젝트 승인절차는 프로젝트 신청(Project Application), 프로젝트 평가(Project Evaluation), 프로젝트 심사결과 제출(Project Endorsement), 프로젝트 승인(Project Approval/Non-Approval)의 4단계를 거쳐 결정됨 (투자뉴스 15호 FOCUS, 프로젝트 승인절차 참조)
  
- 필리핀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59개의 CDM 프로젝트가 승인되었으며 이 중 21건이 UNFCCC에 등록되었음(2009.3.16 현재)
  
- 필리핀 CDM 사무국은 2008년 3건을 비롯, 총 47건의 프로젝트 신청 건에 대해 심사 중 이어서 향후에도 CDM 프로젝트 승인은 급증 예상

- CDM 사업규모별로 크게 Regular Scale 프로젝트와 Small Scale 프로젝트로 분류되는데 비중은 각각 8:2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CDM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충족시킬 경우 small-scale CDM project로 분류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두 regular-scale CDM project로 간주됨
  - Type I: 15 MW 혹은 이와 동등한 수준의 최대 생산능력을 갖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 Type II: 공급 및 수요측면에서/ 연간 15 GWh의 에너지 소비 감소효과가 있는 프로젝트
  - Type III: 연간 15,000t이내의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를 가져오는 프로젝트
  - Type IV: 저소득층 커뮤니티 대상으로 연간 8 kt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하는 프로젝트
- Regular scale 프로젝트: 재생에너지(풍력, 지열, 수력), 에탄올 공장에서의 폐수처리, 폐열 활용, 매립지가스 활용 및 발전, 설탕, 시멘트 공장에서의 쌀겨 바이오메스 연료 활용, 유기폐기물 퇴비화 프로젝트 등
- Small Scale 프로젝트: 돼지 및 가금류 농장과 생활하수에서 발생한 메탄 활용과 발전 프로젝트가 다수이며, 퇴비화 과정에서의 바이오메스 활용한 메탄 감축, 쌀겨, 코코넛껍질을 활용한 바이오연료, 소수력발전, 열병합 발전, 수자원복구, 트라이시클(삼륜차) 개조 등
- 현재 CDM Board에는 21건의 CDM 프로젝트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프로젝트별 주요내용과 외국기업 참여현황은 다음과 같음

필리핀 CDM 프로젝트 및 외국기업 참여현황

| 등록일       | 프로젝트명   | 추진국 | 참여국   | 감축규모  |
|-----------|---|-----|---|-------|
| 10-Sep-06 | NorthWind Banguì Bay Project  | 필리핀 | 캐나다,<br>네덜란드<br>핀란드<br>프랑스<br>스웨덴<br>독일<br>영국<br>일본<br>노르웨이 | 56788 |
| 01-Oct-06 | Wastewater treatment using a Thermophilic Anaerobic Digester at an ethanol plant in the Philippines | 필리핀 | 일본  | 95896 |
| 21-Oct-06 | Gold Farm Livestocks Corporation Methane  | 필리핀 | 영국  | 2929  |

|           | Recovery and Electricity Generation  |     |      |        |
|-----------|--|-----|------|--------|
| 23-Oct-06 | Joliza Farms Inc. Methane Recovery   | 필리핀 | 영국   | 3656   |
| 28-Oct-06 | Uni-Rich Agro-Industrial Corporation Methane Recovery and Electricity Generation   | 필리핀 | 영국   | 2929   |
| 30-Oct-06 | Gaya Lim Farm Inc. Methane Recovery  | 필리핀 | 영국   | 3130   |
| 10-Dec-06 | 20 MW Nasulo Geothermal Project  | 필리핀 | 네덜란드 | 74975  |
| 31-Jan-07 | Paramount Integrated Corporation Methane Recovery and Electricity Generation   | 필리핀 | 영국   | 7582   |
| 13-Apr-07 | San Carlos Renewable Energy Project  | 필리핀 | 영국   | 37658  |
| 05-May-07 | Philippine Sinter Corporation Sinter Cooler Waste Heat Recovery Power Generation Project                                   | 필리핀 | 일본   | 61702  |
| 26-Aug-07 | D&C Concepcion Farms, Inc. Methane Recovery and Electricity Generation Project   | 필리핀 | 영국   | 3348   |
| 07-Sep-07 | Superior Hog Farms Methane Recovery  | 필리핀 | 영국   | 3346   |
| 07-Sep-07 | Bondoc Realty Methane Recovery and Electricity Generation Project  | 필리핀 | 영국   | 1785   |
| 08-Sep-07 | Goldi-Lion Agricultural Development Corporation Methane Recovery and Electricity Generation Project                        | 필리핀 | 영국   | 3994   |
| 17-Dec-07 | The Anaerobic Digestion Swine Wastewater Treatment With On-Site Power Bundled Project (ADSW RP1001)                        | 필리핀 | 영국   | 5806   |
| 01-Feb-08 | Quezon City Controlled Disposal Facility Biogas Emission Reduction Project   | 필리핀 | 이탈리아 | 116339 |
| 16-Mar-08 | Laguna de Bay Community Waste Management Project: Avoidance of methane production from biomass decay through composting -1 | 필리핀 | 네덜란드 | 6058   |
| 06-Jun-08 | Hedcor Sibulan 42.5 MW Hydroelectric Power Project   | 필리핀 |      | 95174  |
| 24-Jun-08 | MAKATI SOUTH SEWAGE TREATMENT PLANT UPGRADE WITH ON-SITE POWER   | 필리핀 | 영국   | 28729  |
| 10-Sep-08 | First Farmers Holding Corporation (FFHC) Bagasse Cogeneration Plant  | 필리핀 | 스페인  | 119787 |
| 15-Mar-09 | Biomass boiler project in the Philippines  | 필리핀 | 일본   | 18529  |

자료: UNFCCC <<http://cdm.unfccc.int/Projects/registered.html>>

- 풍부한 농업 및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필리핀은 국내는 물론 해외 기술과 자본을 도입, 활용한 CDM 프로젝트 추진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 1 억 명에 육박하는 인구와 도시인구가 5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 및 온실가스 등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규모 무역 및 투자 잠재력이 무한한 것으로 평가됨.
- 아직도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지역이 40%를 넘는 무한한 자원 보고로서의 필리핀은 재생에너지 및 폐기물 처리 등에 한국기업의 투자가 매우 유망
- 필리핀의 에너지 개발목적에 부합하고 현지실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재생에너지 개발이 가장 유망한 진출분야이며 이외에 폐기물 처리 등 환경오염 방지 분야로 각광받고 있음
- 특히 현재는 방대한 천연자원과 1 억 명의 인구에 부합하는 CDM 프로젝트의 발굴 및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며 풍력, 수력 및 바이오매스 등을 중심으로 CDM 프로젝트 진출 관련 국내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음.
- 풍력에너지(Wind Energy): 필리핀 전역에 걸쳐 유망한 풍력발전 지대가 있으나 조사결과로는 필리핀 북쪽 및 중앙지역 이 풍력발전에 유망한 지역이며 대체로 6 개 지역(Luzon 북쪽의 Batanes and Babuyan, Luzon 북동의 Ilocos Norte, Luzon 내륙 고지대인 Mindoro, Samar, Leyte, Panay, Negros, Cebu, Palawan, Mindanao 동부 및 인근 도서지역, Luzon 북쪽에서 Samar 남쪽까지 이어지는 동부해안지역, Luzon 과 Mindoro(Lubang 섬 포함) 사이의 바람이 심한 지역, Mindoro 및 Panay 를 잇는 지역(Semirara 섬 포함)) 이 주목 받고 있음
- 수력발전(Hydropower): 열대 몬순 지역으로서 필리핀은 연간 평균 강수량이 2,360 mm 에 이르며 421 개의 강이 있고 40 에서 25,500km<sup>2</sup> 에 이르는 배수지역이 있어 수력발전에 양호한 여건을 형성하고 있음. 만성적인 전력부족에 직면한 필리핀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전력생산 증대를 추진중. 현지 민간 기업은 물론 한국과 같은 외국기업의 투자를 통한 수력발전 전력생산에도 기대를 갖고 있어 사안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우리기업의 참여가능성 검토 필요
- 바이오매스(Biomass): 필리핀은 광대한 농업과 가축, 임업에 의해 바이오매스 자원이 매우 풍부하며 주요 기여요인은 땃나무(장작), 사탕수수 찌꺼기, 코코넛 잔존물, 쌀 껍데기, 가축배설물, 도시지역의 폐기물 등임. 이들 재료 활용시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력생산을 극대화 할 수 있을 전망이다.

- 도시폐기물(Municipal Solid Wastes): 필리핀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The Philippine Energy Plan projects that by 2004)에 의거, 도시지역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어 환경문제에 대두됨에 따라 이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CDM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필리핀의 경제성장과 인구증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메트로 마닐라에서 2014 년까지 배로 증가하여 하루 11,000 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나 현재 2 개의 쓰레기 소각장만이 있어 한계상황에 이르렀고 외곽에 별도의 소각장 신설을 검토 중인 상황임. 우리의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한 환경정화 방법의 전수 및 쓰레기 소각장 건설, 다양한 방식의 폐기물 발전 사업이 검토되고 있으며, 다양한 재원을 활용한 프로젝트 발굴 및 진출이 요구되고 있음
  
- 태양광에너지(Solar Energy): 필리핀은 적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태양열 에너지 활용이 용이하며 최저비용으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어서 우리의 태양광 발전기술(Solar photovoltaic (PV) technologies)을 접목할 여지가 많음. 이미 필리핀에도 CEPALCO(Cagayan Electric Power and Light Company)에서 운영하는 Solar PV-Bubunawan Hydro Project 와 같은 태양광 발전이 시도되고 있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 한국의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한 발전소 건설, 태양광 발전에 소요되는 다양한 기자재를 중심으로 한 부품 공급 등을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CDM 프로젝트 발굴 및 참여가 유망함.
  
- 지열에너지: 필리핀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미국에 이은 세계 2 위의 지열 발전 국가로 명성을 쌓고 있으며 지열에너지 생산은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90 년대 심각한 전력부족 현상을 겪은후, 민영화를 포함한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01 년 전력산업개혁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에너지원 확보에 노력중임. 세계 최대 지열 발전국가의 입지여건을 활용한 CDM 사업 유망
  
- 필리핀은 세계 4위의 CDM 프로젝트 등록국가로서 미국, 영국을 비롯한 많은 해외 기업들의 참여가 일반화 되어 있다는 점도 우리기업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음. CDM 프로젝트 신청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한국을 비롯한 외국기업의 참여는 결국 국제 입찰 등과 같이 현지기업 혹은 딜러 등 정보망을 통한 사전 정보입수, 참여 등의 절차적 문제에 사업성패여부가 좌우됨에 유의해야 함.
  
- 의향서의 접수 이후에도 DOE (Designated Operational Entities)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국내와 다른 자금흐름상의 애로 등으로 인해 사업신청 및 원활한 추진이 제한 받게 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사항임

- CDM 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국업체들은 우선 프로젝트 신청을 위한 사전 단계로 필리핀 환경국(Environmental Management Bureau)을 접촉하여 준비 및 검토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정보수집이 필요함
- 환경자원부의 부서로서의 환경국은 동시에 IACCC 및 DNA-CDM 사무국으로서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CDM 프로젝트와 관련된 최근 정책동향 및 가이드라인 등을 요청하고 입수하는 데도 매우 유용한 기관임
- 대부분의 CDM 프로젝트 신청에 필요한 요건들은 <http://cdmdna.emb.gov.ph>를 통해 온라인으로 입수가 가능함



## ▣ 경제 통상 정보

### 필리핀 Visayas 전력거래소 상반기중 개장

#### - 전력시장 자유화 앞당길 듯 -

- 필리핀 비사야스(Visayas) 지역(필리핀 2대 도시인 세부 소재지)에도 전력도매시장(WESM, Wholesale Electricity Spot Market) 이 6월 늦어도 9월에 개장 예정
  - WESM 개장은 필리핀 기업인들의 숙원사업으로 필리핀 에너지부는 그동안 비사야스 지역 발전, 송전 설비 부족을 이유로 WESM 개장을 미뤄왔었음.
  - 필리핀 에너지부 Ocampo 차관보는 비사야스 WESM 개장은 비사야스 전력공급 프로그램(Visayas Supply Augmentation, VSAP) 이 시행되면 바로 가능하다고 밝힘.
  - WESM을 운영하는 PEMC (Philippine Electricity Market Corporation) 와 에너지부는 필리핀 에너지규제위원회(ERC)의 VSAP 승인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태
- WESM-비사야스가 개장하면 세부와 민간섹터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전력 부족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 2008년 비사야스 지역 16개 경제단체는 Arroyo 대통령에게 WESM-비사야스의 상업적 운영을 승인 요구한바 있음.
  - 필리핀 전력공사와 (National Power Corp.)와 National Transmission Corp 관계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현재 건설중인 5개 석탄화력 발전소가 완공되는 2010년까지 비사야스 지역에 전력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음.
  - WESM 운영은 발전, 송배전업자간 경쟁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전력시장에 원가가 제대로 반영된 전기료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
  - Carlos Co 세부 상공위원회 전력위원회 위원장은 VSAP 실행으로 비사야스 지역 전력시장에도 경쟁체제가 도입될 것으로 언급

- WESM 이 단기적으로는 전기단가를 소폭 올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나, 숨어있는 전력공급을 끌어낼 수 있어 전력 부족사태를 막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게 비사야스 지역 기업인들의 입장임.

□ 단 PEMC측은 Cebu, Negros, Panay 지역 평균 최대 전력수요량인 1,065MW의 97% 전력이 이미 체결된 발전사-배전사간 양자 계약에 의해 가격이 결정됨에 따라, WESM-비사야스 개장이 최종 전력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바 있음.

□ 2001년 제정된 필리핀 전력산업개혁법 (EPIRA, Electric Power Industry Reform Act)은 규제를 풀고 시장에 의해 전력가격이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 전력거래소 (Electricity Spot Market) 설립을 요구한바 있음.

○ 기존 전력요금 결정 방식은 Energy Regulatory Commission에서 개별요금 승인 방식으로 각 발전, 송전, 배전회사들이 지역여건, 재무상황, 발전비용(석탄, 석유 등 발전에 이용되는 연료의 가격, 환율 등)을 고려하여 요금승인을 요청하면 Energy Regulatory Commission가 이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승인하는 방식이 주를 이룸.

○ 하지만 WESM 역할이 커져 Open Access 및 소매경쟁이 도입되면 Energy Regulatory Commission의 역할은 줄고, 가격이 저렴한 전력이 소비자에게 선호될 전망이다.

\*\* WESM, Wholesale Electricity Spot Market (wesm.ph)

○ 발전업자와 송배전업자 (전기사업자와 브로커)가 실시간으로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는 마켓, 필리핀 정부가 운영, 에너지부 장관이 WESM 이사회 의 Chaiperson을 맡고 마켓 참여자는 ERC 가 심사, 승인시 가입 가능

○ 경제성이 높은 (생산단가가 낮은) 전기의 우선 사용, 시장에 의한 투명한 전력 가격 형성 통해 전력 분야 투자와 경쟁 유도

○ WESM 운영 Mechanism 시장 참여자들은 시간단위로 필요한 전력량과 희망가격 제시 (bid), Bids는 MO(Market Operator)에게 제공되고, 이때 제시가격은 단지 전력생산비용만 반영. MO(운영자)는 MDOM(Market Dispatch)에 의해 Bids를 매치 시킴, 이때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전력 공급자의 전기를 우선 배분 (발전회사의 오퍼와 전력 수요자측의 Bids를 매치 시키는 역할 수행). MO는 송배전 스케줄(Dispatch 스케줄)을 SO(System Operator)에게 제출하여 실행. 전력 공급자, 수요자는 WESM을 통해 대금 지급 완료, 동

시스템활용 시 전력 총비용은 Spot Price (market clearing price), 수수료, 관련서비스 비용을 통해 계산됨, 그러나 쌍방 전력공급계약(bilateral power supply contract)의 경우, 계약 당사자가 직접 거래 가능

\* 관련정보: '필리핀 전력산업 구조와 전력요금 결정체계, 2009.2.11' 참조

---

**필리핀, 바이오에탄올/메탄 활용 전력 상용화 급물살**  
**- 에너지 규제 당국 친환경에너지 생산 전기 판매 승인 -**

---

- 필리핀 내 바이오에탄올, 메탄 등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상용화가 활기를 띠고 있음.
- 필리핀 최초의 바이오에탄올 생산기업인 San Carlos Bioenergy Inc.사는 필리핀 당국의 승인으로 바이오에탄올을 연료로 생산한 전기를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음.
- 필리핀의 전력 및 에너지규제 당국인 ERC(Energy Regulatory Commission)는 San Carlos Bioenergy사의 사탕수수(bagasse) 바이오연료 혼합 발전소에 대해 적합성판정서를 발부했다고 발표
  - 이번 승인으로 Negro Occidental주 San Carlos 시에 있는 동사 발전소는 상업적 가동이 가능하게 되었음.
  - San Carlos 발전소는 8.3MW급 바이오연료 발전기와 1.6MW급 디젤 발전기 등 총 발전 용량은 9.9MW의 전력설비를 보유하고 있음. 이중 바이오연료 발전기는 사탕수수의 당분을 짜고 남은 찌꺼기인 바가세(bagasse)를 원료로 사용함.
- San Carlos Bioenergy 사는 ERC에 대해 추가로 Victoria-Manapla-Cadiz Rural Electric Services Cooperative Inc.사와 전력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승인도 신청해 놓은 상태
  - 동건의 승인은 바이오에탄올이 가솔린 혼합제에서 전력생산 원료로 본격 활용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
  - 동사는 통합 에탄올연료 증류소와 혼합발전설비를 보유한 필리핀 최초의 에탄올 생산공

급 기업으로, 지난 3.16일에는 필리핀 최대 정유, 가스 유통사인 Petron사에 160만톤의 에탄올을 처음으로 공급한바 있음.

- Negros Occidental 동부해안에 위치한 동사 공장에서는 하루에 1,500톤의 사탕수수를 가공, 연간 3천만리터의 에탄올 연료 생산 가능. 이는 Petron의 연간 에탄올 소요량인 70천만 리터의 절반에 가까운 분량임.

- 이전까지 Petron 등 필리핀의 메이저 정유사들은 바이오연료 혼합 개솔린 생산을 위해 바이오에탄올 연료를 브라질 등 해외 수입에 의존했었음.

- San Carlos Bioenergy사는 필리핀 Bronzoak사가 설립한 기업으로 국영투자기업인 National Development Co., MAJENT Group, 뉴욕에 소재한 FE Clean Energy사로부터 투자를 받았음. 이외 주요 주주는 필리핀의 San Julio Realty, Valmayor Ventures 등임.

□ ERC는 지난 2월에도 필리핀 최초의 메탄발전소를 보유한 Montalban Methane Corp.사에 대해 전력판매 승인서를 발부 한바 있음.

- Montalban Methane 사는 33백만불에 달하는 9개의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발전용량은 8.2MW에 달함.

- 필리핀 바이오연료 개발 확대는 필리핀 원유 수입의 15% 정도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

- Cruz-Ducut ERC 위원장은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ERC는 이런 발전소들의 전력 사용 확대 및 전력의 품질과 안정성 확보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언급

□ 참고로 필리핀은 바이오에너지법을 제정(Biofuel Act 2006, Republic Act 9367) 2007.1월 발효시킴으로써 바이오연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동 법안은 바이오 연료의 단계적 사용 확대와 바이어 연료 생산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골자로 함. 카사바, 옥수수, 사탕수수 등 바이오에탄올 원료와 코코넛 등 바이오 디젤 원료가 풍부한 필리핀은 일찍부터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관심을 가져 왔음.

- 금년부터 가솔린 연료에 대해 5% 바이오연료 혼합이 의무화, 2011년에는 혼합 의무비율이 10% 로 인상 예정, Petron, Shell, Seoil 등 주요 정유사들은 이미 10% 혼합 가솔린을

판매중임. Chevron사도 2천만불을 투자, 늘어나는 바이오연료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10% 바이오에탄올 혼합 가솔린을 조만간 출시 예정임. Chevron사의 경우 현재 브라질에서 바이오 에탄올을 수입중이나, 현지 조달을 검토중. Chevron은 지난 9월 상장기업인 Basic Energy Corp.와 에탄올 공급 계약 체결, 바이오에탄올(E-10 등)의 가격은 리터당 34.97페소로 일반 가솔린보다 1페소 정도 저렴함.

- 디젤연료에 대해서도 현재 1% 바이오에너지 혼합을 규정, 내년 2월에는 동 비율이 2%로 오르고 조만간 3%까지 올라갈 수 있어 해당 분야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음.

필리핀 바이오 연료 혼합사용 의무화 내용

| 구분      | 의무화 내용                     | 발효 시기    |
|---------|----------------------------|----------|
| 바이오디젤   | 디젤의 최소1%를 바이오디젤로 혼합 사용     | 2007.5.6 |
|         | 디젤의 최소 2%를 바이오디젤로 혼합 사용    | 2009.2   |
| 바이오 에탄올 | 가솔린의 최소 5%를 바이오에탄올로 혼합 사용  | 2009.2   |
|         | 가솔린의 최소 10%를 바이오에탄올로 혼합 사용 | 2011.2   |

## ▣ 투자 Project 정보

- 아래 프로젝트는 필리핀 정부관계자로부터 입수한 광산투자 프로젝트입니다.
- 동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KOTRA 마닐라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contact: 임성주 차장 / Tel: +63-2)893-3244, 1183 / sungju@kotra.or.kr
- 단, 동 정보는 한국기업에게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젝트 정보의 정확성, 추진기업과 KOTRA 는 관련이 없음을 양지 바랍니다.

### 투자 프로젝트 정보 - 구리, 금, 은 광산 프로젝트 1

|                        |  |
|------------------------|--|
| <b>Area Coverage</b>   | 1,603 hectares   |
| <b>Mining Tenement</b> | Exploration Permit Application denominated as EXPA-000085 VI |
| <b>Date File</b>       | November 5, 2007   |
| <b>Location</b>        | Municipality of Barbaza, Province of Antique                 |
| <b>Commodity</b>       | Gold, Copper, Silver, etc.                                   |
| <b>Ore Analysis</b>    | 76% Cu; 1.33 gpt Au (surface exposure)                       |
| <b>Locator</b>         | Ms. Susan P. Lim   |

### 투자 프로젝트 정보 - 구리, 금, 은 광산 프로젝트 2

|                        |  |
|------------------------|--|
| <b>Area Coverage</b>   | 1,235.25 hectares  |
| <b>Mining Tenement</b> | Exploration Permit Application denominated as EXPA-000083 VI |
| <b>Date File</b>       | October 1, 2007  |
| <b>Location</b>        | Municipality of Barbaza, Province of Antique                 |
| <b>Commodity</b>       | Gold, Copper, Silver, etc.                                   |
| <b>Ore Analysis</b>    | 4.56% Cu; 1.33 gpt Au (surface exposure)                     |
| <b>Locator</b>         | Mr, Quirico G. Pe  |

- 아래 프로젝트는 필리핀 대표 투자 컨설팅 Firm(Private Equity Adviser)인 Argosy사와 협력, 제공하는 FDI (직접투자)분야 프로젝트 정보입니다.
- 동 프로젝트 참여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저희 KOTRA 마닐라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contact: 임성주 차장 / Tel: +63-2)893-3244, 1183 / sungju@kotra.or.kr
- 단, 동 정보는 한국기업에게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젝트 정보의 정확성, 추진기업과 KOTRA는 관련이 없음을 양지 바랍니다.

### 'Leyte' 니켈 광산 개발 Project (Magnetite/Iron/Ferronickel Opportunities)

**- Miner "Code Name" is a private mining company with projects in Leyte, Philippines**

Controls 40,000 ha of claim applications (**two large mining permits just granted**). Completed 33,440 meters of drilling in 3,597 holes. Reserves of 10 million tons of measured and 192 million tons of indicated recoverable magnetite concentrate (> \$100 Billion).

**- Miner is working on three independent but synergistic projects:**

Magnetite sand mining and magnetite concentrate processing;

Sponge iron production and downstream conversion to steel and vanadium; Ferronickel production.

**- All projects require:**

Little capital and exhibit very low operational costs (bottom 25%). Profitable at the lowest iron and nickel prices over the last 10 years. Estimated revenue of \$244 million in Stage 1 and \$ 2 billion in Stage 2 and pretax profit of \$149 million per year for Stage 1 and \$1.2 billion for Stage 2.

**- Miner obtained rights to 50% JV over decommissioned cement plant**

With minor modification will be used to produce Sponge Iron and Ferronickel. Consequently, capital costs kept to a minimum.

**- Ferronickel Operation**

Two lines allocated (lines 1 & 2). Line 1, 90% rehabilitated, Price is \$890 (5.3% Ni) and cost is \$339 per ton, Can make money even if ferronickel price goes down to \$200 per ton, Over last 10 years, highest price \$3,271 per ton and lowest \$574 per ton.

**- Sponge Iron Operation**

Price is \$350 and cost is \$247 per ton, Can make money even if sponge iron price goes to \$190 per ton, Over last 10 years, highest price \$800 per ton and lowest \$200 per ton.

**- Significant upside on downstream Operations**

Three million steel productions for local market in a Stage 2 integrated steel and vanadium operation using low cost geothermal power generated near to the magnetite production area. Cash costs amongst lowest in world – significant vanadium byproduct credits

**- A low risk brownfields restart, not a greenfields start-up:**

INCO was exporting 1 million tons/year and was highly profitable;

Operations closed in 1975 due to ban on beach sand mining;

Restart due to new Mining Act and growth in worldwide demand.

**- Favorable Polit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Low population density and economically depressed area;

Mining process is simple, no chemicals. Land is restored to a better condition within a 6 month period; Crop yields

increase and farmers generously compensated.

**- Economic Factors: (November costs and prices)**

Mining/processing cost in lowest quartile on world cash cost curve (\$15/ton). Current price is \$47 per ton.

Over last 10 years, highest price was \$75 per ton and the lowest \$19 per ton.

Magnetite concentrate production rate per year of up to 10 million tons is practicable; Off-take agreement for initial supply of 1.2 million and up to 3.6 million tons for export and 1.0 million for domestic processing.

---

**친환경 석탄화력 발전소 Project**

---

- The opportunity is to partner with a local company in deploying highly efficient, clean coal-fired power plants to niche markets in the Philippines. The Philippines is already experiencing power shortages and the situation is expected to get worse over the next years.
- The local company has preferred access to large amounts of affordable domestic coal. Using coal to generate electricity is by far cheaper than using oil, bunker or diesel. Domestic coal is 30% cheaper than imported coal.
- The local company is in the process of deploying highly efficient, coal-fired power plants to niche markets with no access to viable renewable energy sources and poorly served by the grid. These niche markets are highly profitable and its relative small size will not attract significant competition from major power players. The objective is to deliver at least 500MW in the next 3/4 years.
- Partnering with the local company will generate significant competitive Advantages Secure long term coal supply. Low power generation costs. The local company will price the coal to offset any potential inefficiency from smaller coal power plants. Secure affordable financing. Smooth and fast approval of power projects.
- The local partner is currently working on two deals with an IRR of 24% to 46%.



## ▣ 전문가 칼럼

### 미리보는 2010년 필리핀 15대 대통령선거

한 국가의 총수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국가의 정책 방향과 미래, 그리고 특히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대통령 선거라 할 수 있다. 필리핀의 대선은 1년 남짓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선거의 현 주소를 확인해본다.

#### 선거일

필리핀 대통령은 6년 단임제로 현 14대 대통령 GLORIA M. MACAPAGAL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2010.5.10 일 제 15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실시된다.

#### 선거인단

전국의 예상 투표권자는 약 4천 5백만 명으로(총 인구의 약 50 퍼센트), 지난 '04년 대선 기록을 보면 평균 투표율이 81.5 퍼센트이고, 투표의 약 40 퍼센트 이상을 획득해야 당선 가능성이 있다. 선거인단 등록은 이미 시작되었고, 재소자는 2009.5.31일까지, 해외 체류자는 2009.8.31일까지, 일반투표자는 2009.10.31일까지 등록해야 내년 선거에 참여 할 수 있다. 2009년 2월 기준 전국 총 바랑가이(동)는 42,008개로 집계되어있으며, 선거는 바랑가이 단위로 실시된다. 약 1,000만 명의 해외취업자(OFW) 중에 2007년 선거에는 약 50만 명이 등록하여 투표했으나, 2010년에는 약 1백만 명이 등록 할 수 있도록 공항 출국 시 미리 해외체류자 투표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DFA/POEA/COMELEC 합동으로 2009.2.1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 투표방식

이번 대통령 선거는 개정된 선거법 RA 9369 (AUTOMATED ELECTION LAW)에 의거 AES(Automated Election System: 자동기계식 선거투표) 방식으로 실시한다. 2008년도 민다나오 회교자치령(ARMMS)에서 지방선거를 AES로 성공적으로 치러졌으며, 이번 대선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COMELEC)는 AES 실시에 필요한 기계설비 구입에 매우 분주하며, 현재 약 10개의 IT 회사들이 동 장비 공급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 컴퓨터 기계 선거시스템은 지난 2006년도에 필리핀의 MEGA PACIFIC이 약 300억 원의 기계설비를 대한민국으로부터 일괄 구매한 바 있다. 그러나 2007년도 선거에 납품 입찰이 잘 못 되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이 설비들이 사용 되지 못했고 창고료만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ARROYO 대통령이 선거 자동화 설비 비용으로 약 3,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에 서명하여 선거 준비는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필리핀은 보통 대선 개표하는데 20-30 일정도가 소요되며 자주 투표함을 강탈당하거나 바꿔 치기 하여 부정투표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AES 방법 채택으로 투표 3 일 내에 대통령의 당선 여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들

다음 대통령 후보에 거론 되고 있는 몇 후보들은 이미 간접적인 선거운동에 돌입, 상업용 광고모델이나, 지역사회 광고 등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 미디어와 리서치 회사들이 조사한 차기 대통령 후보의 유력인사별 득표율 예측을 보면 (위키피디아에서 발췌), TV 뉴스 앵커로서 유명했던 현 부통령인 Noli De Castro 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집계되어있고, 이외 TV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각광 받았던 현 여자 상원의원인 Loren Legarda, 현 국회의장을 맡고 있으며 갑부인 Manny Villar, 현 최연소 상원의원인 chiz Escudero, 아직은 상위권에는 들지 못하고 있지만 대통령 아들로서 현 상원의원인 Manuel Roxas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가장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은 전임 대통령인 Joseph Estrada 가 출마의사를 보였고 많은 빈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과연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이 다시 출마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난무하다.

'07~'08년, 대통령 후보 지지율 조사

(단위: %)

| 대통령 후보            | '07년 9월 | '07년 12월 | '08년 3월 | '08년 6월 | '08년 11월 | '08년 12월 |
|-------------------|---------|----------|---------|---------|----------|----------|
| Estrada, Joseph   | 5       | 9        | 14      | 11      | 13       | 11       |
| De Castro, Noli   | 25      | 30       | 35      | 31      | 29       | 31       |
| Escudero, Francis | 13      | 15       | 19      | 14      | 16       | 19       |
| Lacson, Panfilo   | 18      | 13       | 12      | 16      | 17       | 14       |
| Legarda, Loren    | 44      | 23       | 30      | 26      | 26       | 28       |
| Roxas, Mar        | 9       | 20       | 16      | 13      | 13       | 10       |
| Villar, Manny     | 18      | 27       | 17      | 25      | 28       | 27       |

자료: Social Weather Station

지역별, 대통령 후보 지지율 조사

(단위: %)

| 대통령<br>후보   | 지역 |     |     |     |     | 계층  |    |    |
|---|----|-----|-----|-----|-----|-----|----|----|
|   | 전체 | NCR | LUZ | VIS | MIN | ABC | D  | E  |
| DE CASTRO, Noli<br>"Kabayan" L                    | 19 | 14  | 19  | 19  | 24  | 18  | 20 | 19 |
| ESCUDERO, Francis<br>"Chiz" G.                    | 17 | 27  | 17  | 16  | 11  | 23  | 16 | 15 |
| ESTRADA, Joseph "Erap"                            | 16 | 13  | 17  | 9   | 23  | 12  | 15 | 20 |
| Villar, Manuel<br>"Manny Mr. Sipag at Tiyaga" Jr. | 15 | 12  | 14  | 25  | 12  | 13  | 16 | 16 |
| Legarda, Loren                                    | 12 | 9   | 15  | 9   | 11  | 9   | 12 | 12 |
| Roxas, Manuel<br>"Mr. Palengke/Mar" A. II         | 8  | 8   | 6   | 13  | 6   | 10  | 8  | 6  |
| LACSON, Panfilo<br>"Ping" M                       | 6  | 8   | 6   | 4   | 5   | 5   | 6  | 6  |
| BINAY, Jejomar "Jojo"                             | 2  | 6   | 3   | 0   | 1   | 3   | 2  | 3  |
| FERNANDO, Bayani "BF"                             | 1  | 2   | 1   | 0   | 0   | 3   | 1  | 0  |
| Others  | 1  | 0   | 1   | 0   | 1   | 0   | 1  | 0  |
| None/Refused/Unddecide                            | 3  | 2   | 2   | 4   | 6   | 5   | 3  | 3  |

자료: Social Weather Station, (조사기간: '09.2월 2~15일)

KOTRA 마닐라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장재중 자문위원  
Uni Group 회장

## 전략물자 수출입 관련 유의사항

### 전략물자 정의

전략물자(STRATEGIC MATERIAL)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고 공고하는 물품이 대상이다.. 한국은 대외무역법 및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지식 경제부장관이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에 전략물자를 고시하고 있으며,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수출입 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전략물자라고 의심되는 품목은 반드시 관련기관에 허가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전략물자'라 하면 대개 무기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 물품, 기술 등도 전략물자에 포함된다. 일례로 테니스라켓과 샴푸는 그 자체가 전략물자가 아니지만, 테니스라켓에 사용되는 탄소섬유가 미사일 동체제작에 사용될 수 있고, 샴푸 제조원료인 트리에탄올아민이 생화학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 관련법

대외무역법 제 19조,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2-12호)

### 전략물자 수출허가기관

- 지식경제부: 일반산업물자, 소프트웨어
- 방위산업청: 방산물자
- 과학기술부: 원자력 전용물자 및 기술
- 통일부: 북한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자

### 전략물자 관련 국제조약 및 국제체계

- 국제조약
  - NPT: 핵무기 비확산 조약, 핵전쟁의 참화와 전쟁의 위험을 방지하고 인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대해 IAEA 안전조치를 적용하고,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의한 이익은 모든 당사국에게 제공하며, 핵무기 경쟁의 중지와 핵군축을 위해 모든 국가가 협력하고 노력하는 조약.
  - BWC: 생물무기금지협약, 미생물, 생물학 작용제 및 독소의 개발, 생산, 비축 및 획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보유 병원균, 독소, 장비 및 운송수단의 폐기 또는 평화적 목적으로의 전환을 규정
  - CWC: 화학무기금지협약, 화학무기의 생산 • 비축 •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

○ 국제관리 체계

- WA: 재래식 무기 관련 국제체계(참가국: 대한민국 포함 40개국, 필리핀 미포함)
- NSG: 핵무기 관련 국제체계(참가국: 대한민국 포함 45개국, 필리핀 미포함)
- AG: 화학무기 및 생물학무기 관련 국제체계(참가국: 대한민국 포함 40개국, 필리핀 미포함)
- MTCR: 미사일무기 관련 국제체계 (참가국: 대한민국 포함 35개국, 필리핀 미포함)
- 상기 국제조약 및 국제체계 이외, 유엔안보리에서 정한 국제질서 UNSCR, PSI(테러관련), CSI(컨테이너 관련), Catch-All(미사일 운송수단 관련), IAEA Safeguard 등

필리핀의 경우

필리핀의 경우 전략물자 관련 국제조약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국제관리 체계에는 아직 다수 미가입 상태다. 하지만 DENR 을 비롯한 필리핀 정부에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수입 시 I/L(Import License)를 통해서 관리 및 허가를 수행하고 있다.

방산업체 관련된 무기는 물론이고, 주로 광산으로 판매되는 청화소다(Sodium Cyanide) 등 각종 화학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된다. 청화소다의 경우 2003년 라푸라푸광산에서 유출로 인해 환경문제가 심각히 대두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동 광산의 면허가 취소되기도 했었다.

청화소다는 재수출을 철저히 금하고 있는데 일례로 태국으로 수출된 청화소다가 북한으로 재수출되어 한국수출업자 및 제조업체가 상당부분 제재를 받은 적도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략물자의 경우 국가별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테러 사건으로 인해 테러집단과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협력이 증대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 바, 수출입의 경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KOTRA 마닐라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이호익 자문위원  
Yiho Corp. 사장

## ▣ 경제 단신

### 필리핀 정부 Calaca 석탄발전소 매각 추진

- Tolentino 필리핀 전력자산관리공사(Power Sector Assets and Liabilities Management Corp, PSALM) 대변인은 600MW급 Calaca 석탄발전소에 대한 재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힘.
- 동 발전소 매각은 3회 유찰 후 4번째 입찰 예정이며, 국내외 4개 사가 이미 입찰참가비를 납부했다고 함.
- 2007년 프랑스 Emerald Energy Corp. 사가 동 발전소 입찰에 참여, 낙찰받았으나, 2009년 1월 발전소 전력생산량 불충분의 이유로 계약을 파기한바 있음.
- 이로 인해 필리핀전력공사(National Power Corp, Napocor)의 민영화 추진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음
- 필리핀전력공사(National Power Corp, Napocor)의 민영화 목표는 70% 이상이며, 현재 53%에 그치고 있음.
- 그러나 동 매각 건이 성사되면 민영화율 70%가 달성 가능 (Business World 3.24)

### 필리핀 정부, 노르웨이 Intex Resources ASA사에 남Luzon 니켈채굴 프로젝트 허가

- 동사는 필리핀 정부로부터 니켈채굴 허가를 받았으며, 2010까지 남Luzon 지역 9,072Ha 규모의 니켈광산에 대한 타당성조사 실시 예정
- 동사는 자체자금 및 외부투자자자금으로 초기개발비 20억 달러를 투자해 연간 니켈 40,000톤과 코발트 3,000톤을 생산하고, 2차 개발비 9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여 니켈가공공장을 설립, 생산량을 두배로 늘린다는 계획임.
- 필리핀 환경부장관 Atienza, Jr.는 Intex사가 1,2차 광산 개발에 성공하면, FTAA(금융 및 기술 지원계약)도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힘.
- 니켈 가격은 현재 9,900달러/톤으로, 작년 28,000달러/톤에서 극심한 하락세에 있음 (Business World 3.24)

---

### Conal Holdings Corp.사, Mindanao 석탄발전소 상업발전 가동 연기

---

- Conal Holdings사의 Nocos 부사장은 민다나오 석탄발전소의 상업발전을 2011년에서 2013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
- 발전소 개발 허가 와 타당성 검사가 지연됨에 따라 올해 중 발전소건설 허가를 받을 경우 2013년부터 상업발전 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 2007년, 동사는 Mindanao에 900MW급 발전소를 최첨단 친환경 기술을 도입, 건설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으나 최근 기술력 부족을 인정하고 8000ha 토지에 나무를 심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힘 (Business World 3.26)

---

### 캐나다 광업회사 구리, 금광 탐사 확대

---

- 캐나다 주식시장 상장사로 Canatuan 광산을 개발 중인 TVI Pacific, Inc.사는 Palawan과 서 Mindanao 지역의 구리 금광 탐사를 위해 추가 자금 투입 예정
- 4,779ha 규모의 Palawan Balabac 금광은 연간 50,000온스의 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타당성 검사와 채굴을 위해 3백만 달러 투자 예정임.
- Mindanao 내 Tamarok 구리/금광에도 투자예정
- Canatuan 광산에는 구리 65.428백만 파운드, 아연 5,301톤, 금 15,558온스, 은1.074백만 온스 매장 추정되며, 현재 광산 채굴 기간을 6년 연장하고, 371km<sup>2</sup> 광산 추가 탐사권을 획득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와 교섭 중임. (Business World 3.30)

---

### 수출용 옥수수 재배지로 Isabela 지역 선정

---

- 필리핀 옥수수협회(Philippine Maize Federation; Philmaize)는 대만 및 한국 수출용 옥수수를 Isabela의 20,000ha 토지에서 경작 예정
- Navarro Philmaize 회장은 운송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대만이나 한국에 수출할 사료용 옥수수를 Isabela지역에서 경작할 것이라 발표

- Philmaize는 '08년 한국으로 컨테이너 40대 분량의 옥수수를 시험적으로 수출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양국간 가격합의가 실패하면서 계획을 연기한 바 있음.
- o 한국의 수확후가공설비와 곡물터미널 건설부지 검토
- Navarro 회장은 필리핀전역에 수확후가공설비는 Mindanao의 4곳뿐이고, 현재설비부족으로 총 수확량의 15%가 버려지고 있다며, 한국 등의 설비투자 희망 의사 표명
- 2009년 3월 중 Port Irene 인접 지역에 가공설비 마련키 위한 실사 예정
- o Isabela 지역은 필리핀 내 옥수수 최대수확지
- Batanes, Vagayan, Isabela, Nueva Vizcaya, Quirino주로 이루어진 Cagayan Valley는 전년 1.877백만ha의 옥수수농장에서 필리핀 전체 옥수수의 15.5% 수확
- Araullo 필리핀 농업부 차관은 Isabela에서만 최대 50,000Ha의 옥수수 농장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힘. (Business World 3.30)

---

### 디젤연료에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확대 요구

---

- o 코코넛유 정유사들이 현 2%의 Coco-methyl ester(CME) 바이오디젤 함유량을 5%대로 증가시키는 안을 정부와 협의 중
- CME는 코코넛유에서 추출한 알코올 성분으로 디젤과 혼합하면 불순물 제거와 탄소배출감소에 도움 주는 친환경연료로 알려져 있음.
- o CME 함유량 5%의 실현 가능성
- Arranza 코코넛정유협회(Coconut Oil refiners Association) 회장은 현 코코넛 공급량으로 CME 5% 달성에 필요한 374,000톤의 코프라(코코넛 가루) 생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힘.
- 그러나 필리핀석유협회 (Philippine Petroleum Companies Association) Martinez회장은 함유량 증가는 어렵지 않지만, CME 함유량이 증가할 경우 디젤 소비자가 리터당 1페소 상승할 것이어서 이에 따른 소비자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 표명함. (Business World 3.30)



## ▣ 투자진출 A to Z

---

### 외국기업의 민간발주 공사 수주는 가능합니까?

---

인프라 프로젝트 분야 등에 있어 민자 발주 프로젝트는 자금원이 국내이든 해외 차관이든 상관없이 필리핀인 지분이 60% 이상인 기업에 한해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외국기업이 필리핀내 민자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키 위해서는 필리핀인이 60% 이상 지분을 가진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98.10월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조치의 일환으로 순수민간발주공사 수주 시 외국인 100% 투자법인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대표자는 필리핀인으로 하도록 개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청은 자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외국인 100% 투자기업에 대한 면허 발급을 보류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제한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 주요 경제 지표

|                            | 2006 년 | 2007 년 | 2007 년              | 2008 년              |
|----------------------------|--------|--------|---------------------|---------------------|
| GDP 성장률(%)                 | 5.4    | 7.2    | 7.6<br>(1 분기)       | 4.6<br>(1 분기)       |
| 1 인당 국민총생산(USD)            | 1464   | 1770.9 | 815.5<br>(1 분기)     | 1023.9<br>(1 분기)    |
| 필리핀 물가지수<br>(모든 품목에 대한 평균) | 6.2%   | 2.8%   | 2.7%<br>(1 월~10 월)  | 9.4%<br>(1 월~10 월)  |
| 인플레이션<br>(2000 년=100)      | 5.5%   | 2.8%   | 2.8%<br>(1 월~10 월)  | 6.1%<br>(1 월~10 월)  |
| 단기채권(91 일) 이자율             | 5.35%  | 3.41%  | 3.41%<br>(1 월~11 월) | 5.09%<br>(1 월~11 월) |
| 정기예금 이자율                   | 4.94%  | 3.41%  | 3.34%<br>(1 월~11 월) | 3.96%<br>(1 월~8 월)  |
| 대출금리                       | 9.71%  | 8.68%  | 8.62%<br>(1 월~10 월) | 8.62%<br>(1 월~10 월) |
| 경상수지(USD 백만불, %)           | -6732  | -8211  | -2922<br>(1 월~8 월)  | -6418<br>(1 월~8 월)  |
| 수출(USD 백만불, %)             | 46526  | 49321  | 24599               | 25578               |
|                            | 15.6%  | 6.0%   | 6.9%<br>(1 월~8 월)   | 4.1%<br>(1 월~8 월)   |
| 수입(USD 백만불)                | 53258  | 27557  | 25507               | 29532               |
|                            | 10.9%  | 8.1%   | 3.1%                | 15.8%               |
| 총 투자(USD 백만불)              | -118   | 3094   | 388<br>(1 월~8 월)    | 63<br>(1 월~8 월)     |

환율동향

|        | 2007년 | 2008   |        |        |        | 2009년   |         |
|--------|-------|--------|--------|--------|--------|---------|---------|
|        |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월      | 3월      |
| 페소/ 달러 | 45.93 | 45.68  | 46.92  | 48.75  | 48.88  | 47.60   | 48.54   |
| 원/ 달러  | 9353  | 1132.1 | 1324.2 | 1397.3 | 1375.6 | 1433.83 | 1460.09 |
| 페소/원   | 20.39 | 24.36  | 27.73  | 28.54  | 28.82  | 30.28   | 30.24   |

## ▣ 해외투자진출 관련 안내

---

### OIS(해외진출정보시스템) 및 필리핀 비즈니스 클럽(온라인카페) 안내

---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해외투자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7.12월 해외진출정보시스템을 오픈하였으며, KOTRA 마닐라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는 OIS내 '필리핀비즈니스 클럽(온라인 커뮤니티)'을 운영하고 있는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및 정보공유를 바랍니다.

•**주요제공정보:** 투자뉴스, 투자자료실, FAQ, Q&A 등

•**커뮤니티이용방법:** 홈페이지([www.ois.go.kr](http://www.ois.go.kr))에서 커뮤니티(카페명:필리핀, 비즈니스 클럽)에 접속하고 커뮤니티 가입 후 정보 이용

---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 변호사 무료 상담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는 해외투자진출 기업 및 기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진출 관련 제도 (법률, 노무, 세무) 및 경영 애로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 이메일을 통한 상담도 가능하며, 매주 목요일 사전 예약에 의한 내방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바 필리핀 진출 기업 및 진출 추진 기업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 주 1회(매주 목요일) 사전 예약 업체에 한해 센터 내 고문변호사와 대면 상담
- 이메일: [hanskim@kotra.or.kr](mailto:hanskim@kotra.or.kr)
- 연락처: +63-2-893-3244,1183

---

### 무역투자 정보포탈 (Global Window) 안내

---

KOTRA는 한국기업의 무역투자 활동 지원을 위해 전세계 국가에서 무역관이 수집한 정보를 Global Window([www.globalwindow.org](http://www.globalwindow.org))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바, 많은 활용 바랍니다.

---

### 필리핀 투자뉴스 지난호 보기

---

필리핀 투자뉴스의 지난호를 보시기 원하시는 경우 상기 안내드린 '필리핀, 비즈니스 클럽' / '필리핀 투자뉴스' 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신바, 많은 활용 바랍니다.